

월간리프 3호

책은 무엇이든 만나지

당신에게 보내는 식물의 위안 <책&가드닝 키트>

러브앤프리@디어그린

연초록 조그마한 위로를 보냅니다

러브앤프리 '월간리프' 책과 지역 상품 패키지 기획 4월 첫 시작... '이로운 공간' '찬찬히 방앗간' 참여 6월 '디어그린' 가드닝 키트, 7월엔 커피와 차 준비

싱그러운 6월, 조그마한 위로를 건네는 책을 보고, 연초록의 아디안탐을 키우면서 나를 살피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힘을 얻는 시간을 가져보는 것은 어떨까.

독립서점 (주)러브앤프리(대표 윤선훈)는 '책은 무엇이든 만나지, 월간리프'라는 기획으로 매월 지역 창업자의 상품과 스토리를 책을 매개로 만나볼 수 있는 패키지 상품을 선보이고 있다.

지난 2018년부터 러브앤프리를 운영하고 있는 윤선훈 대표는 계속되는 코로나 19로 온라인 판매의 필요성을 느꼈다. 그래서 집에서 책을 받아볼 수 있는 구독서비스 상품을 구상하다가 일반적인 구독서비스와는 차별을 두고자 러브앤프리 책과 지역상품을 결합한 패키지 상품을 기획했다. 지역 소상공인, 청년창업자들과 협업해 가치 있는 상품을 소개하면서 상생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고자 한 것. 그렇게 탄생한 것이 '책은 무엇이든 만나지, 월간리프'다.

무엇이든 만나지, 월간리프'다.

지난 4월 처음 시작한 이번 프로젝트에는 제로웨이스트 샵을 운영하는 '이로운 공간, 이공'과 건강한 먹거리를 만들어 온 '찬찬히 방앗간'이 참여했으며, 지역 창업자의 이야기가 담긴 인터뷰집도 함께 제작해 판매했다.

4월에는 '지구의 날' (4월22일)을 기념해 '이로운 공간, 이공'과 제로웨이스트를 주제로 프로젝트를 진행, 대나무로 만든 칫솔, 고체 치약, 핸드메이드 수세미, 비건 주방비누, 천연 세제 소프넛 등으로 구성된 제로웨이스트 실천 꾸러미와 책 '오늘을 조금 바꿉시다'로 구성된 패키지 상품을 선보였다.

5월에는 건강한 먹거리를 만들어 파는 '찬찬히 방앗간'과 협업해 책을 읽으며 간식으로 먹기 좋은 청크칩과 현미풍그레놀라가 담긴 '고소한 씬' 세트를 제작했다. 책은 '어린이라는 세계'와 '카

키' 중 한권을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이달에는 푸른 식물과 좋은 책이 주는 위안을 선물하고자 광주 시남구 봉선동에 위치한 식물서점 '디어그린' (대표 김하영)과 연초록의 생명력을 느낄 수 있는 '가드닝 키트'를 준비했다. '당신에게 보내는 식물의 위안'을 주제로 가드닝 키트와 책을 함께 만나볼 수 있는 이번 6월 패키지에는 식물과 화분, 흙, 자갈, 영양제가 모두 포함되어 있어 식물 초보도 안내서를 따라 쉽게 나만의 식물을 가꿀 수 있다.

이번 패키지 구성품은 은행잎을 담은 동그란 잎이 귀여운 것이 특징인 아디안탐과 식물 에세이 '조금 괴로운 당신에게 식물을 추천합니다', '디어그린' 김하영 대표 인터뷰집 등이다.

그리스어로 '물에 젖지 않는다'는 뜻의 '아디안 토스'에서 유래한 아디안탐은 '애교'라는 꽃말을 지녔다. 잎 모양이 시원하며 부드러운 느낌을 주는 데다 실내처럼 광이 많지 않은 곳에서도 잘 자라기 때문에 실내 관엽식물로 흔히 재배되고 있다.

식물 키트와 더불어 러브앤프리에서 선정한 식물 에세이 '조금 괴로운 당신에게 식물을 추천합니다' (임이랑 지음·바다출판사)는 코로나 19로



(주)러브앤프리 '월간리프' 이번달 패키지는 '가드닝 키트'다.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는 이들에게 위로를 전한다. 식물애호가이자 초보 가드너인 베이시스트 임이랑이 식물을 키우고 식물을 찾아 떠났던 일상이 담겨있는 편지같은 에세이로 식물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 식물을 키우면서 얻은 삶의 위로 등이 담겨있다.

이달의 상품은 오는 22일까지 신청할 수 있다. 오는 7월에는 여름 휴가 때 챙겨갈 수 있는 '커피와 차'를 주제로 패키지 상품을 선보이며, 8월 한 달은 쉬어간다. 문의는 러브앤프리 인스타그램 계정 (@lovenfree_book)과 전화(062-418-0714)로 가능하며 네이버 온라인 스토어에서도 상품을 만나볼 수 있다.

'책은 무엇이든 만나지, 월간리프'는 앞으로도 지역의 먹거리, 창작품, 꽃, 공예상품 등 다양한 구성품을 매월 책과 함께 선보일 예정이다.

/전문기자 ej6621@kwangju.co.kr

함평 출신 박시양 씨

국가무형문화재

판소리 고법 보유자 인정 예고

문화재청은 최근 국가무형문화재 판소리 고법(鼓法) 보유자로 함평 출신 박시양(59·사진) 씨를 인정 예고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판소리(고법) 보유자로 인정 예고된 박 씨는 1980년 처음 국악을 접하면서 고법에 입문했다. 1989년부터 김성래 전 보유자(1929-2008)로부터 본격적으로 고법을 배우기 시작했으며, 1991년부터 전남도립남도국악단 연주자로서, 1995년부터는 광주시립국악관현악단원으로서 왕성한 연주활동을 펼쳐왔다. 2001년 국가무형문화재 판소리(고법) 전승교육사로 인정돼 고법 전승에 힘써 오고 있다.

특히, 박 씨는 잔가락을 많이 쓰지 않으면서도 소리의 생사맥을 정확히 짚어 소리꾼의 소리를 안정적으로 받쳐주면서 소리꾼을 존중하는 고법을 구사한다는 평을 받았다.

문화재청은 박 씨에 대해서 30일 동안 각계의 의견을 수렴·검토, 무형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인정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문화재청은 국가무형문화재 선소리 산타령 보유자 최창남(86) 씨와 처용무 보유자 김용(88) 씨 등 9명을 명예 보유자로 인정했다.

/전문기자 ej6621@kwangju.co.kr



이공과 협업해 만든 '제로웨이스트' 패키지.



찬찬히 방앗간과 함께한 '고소한 씬' 패키지.

강렬하고 격정적인 '갈매'는 목판화가가 갖고 있는 가장 큰 특징이다. 역사적 사실이나 인물을 담아낸 작품이라고 하면 그 비장미나 근엄함이 무게감을 더한다. 한데, 오월미술관(광주시 동구 문화전당로 29-1 2층)에서 만난 목판화가 박홍규 작가의 작품에선 비장함과 더불어 낙천적인 기운을 함께 느낄 수 있어 인상적이었다. 그가 다룬 주제가 '동학농민혁명'이라는 걸 감안하면 더욱 더.

박홍규 초대전 '혁명은 순정이다'전이 오는 30일까지 열린다. 장흥에 머물며 40점 규모로 동학농민혁명 판화 연작을 제작 중인 박 작가는 이번 전시에서 동학 연작 일부와 님 웨일즈 '아리랑'으로 알려진 혁명가 김산, 광주 출신 작곡가 정윤성을 담은 판화와 채색화 20여점을 선보이고 있다. '후천개벽도'에 등장하는 농부, 백정, 과부 기녀, 아이 등의 '환한 미소'는 새롭게 열린, 민초들

이 주인되는 대동세상에 대한 기대가 담겨 있는 듯해 애잔하다. '고십마를 탕건바위 갑오년 14명 용도' 역시 삶의 긍정적 기운이 엮이는 인물들의 표정이 눈길을 끈다.

가장 인상적인 '동백꽃 대님'은 사랑하는 이의 머리 없는 시신을 등에 업고 달빛 아래를 지나가는 여인의 무심한 얼굴과 주검의 발목에 묶인 붉은 대님이 새겨진 작품이다. 전투에 나간 이들이 죽더라도 버선 대님으로 그 신원을 알기 위해 남편의, 아들의 발에 대님을 묶어주었는데, 장흥 석대들 전투 후 겨워들인 버선 대님이 몇가마니였다는 이야기를 마을 촌로들에게 듣고 작가가 새긴 작품이다.

그밖에 100년 동안 묻혀있던 세상에 알려진 대둔산 전투의 이야기를 담은 작품과 생과 사를 넘나드는 긴박한 상황에서도 뜨거운 동지애를 느낄

'혁명은 순정이다'

수 있는 '예양강', '나는 다른 말이 없다. 나를 죽일진대 종로네거리에서 목을 베어 오고가는 사람들에게 피를 뿌려 주는 것이 옳거늘 어찌 겸손한 적굴 속에서 암연히 죽이느냐'는 글과 함께 새겨진 '전복두'의 얼굴이 강렬하게 다가온다.

전북 부안 출신으로 흥익대 미대 조소과를 졸업한 박 작가는 농부가 되고 싶어 학자가 되는 대신 농사를 짓기 시작했다. 농민운동에 뛰어들면서 자연스레 '그림'으로 발언하기 시작했고, 이후 동학운동을 소재로 한 작품들을 진행중이다.

24일 오후 2시-6시 전시장에서는 작가와의 대화도 열린다.

/김미은 기자 mekim@kwangju.co.kr

목판화가 박홍규 전, 6월 30일까지 오월미술관



박홍규 작 '후천개벽도'

소상공인 공동브랜드 k.tag 전국100개 인증업체선정

大山 프리모 남녀 가발

광주전남 기능장 호 국무총리상 표창 보건복지부 장관상 표창
광주광역시 시장상 표창 광주남구 청장상표창

특수가발 별매 (윈터치) 테잎 x 핀 x 기능장이 직접 37년 시술. 1만명 이상 내공
매주화요일 휴무 (일요일 정상 영업)

H.M사
등급제품 130만원
59만원~

광주 남구 주월동 1199-12 라인가든아파트 상가 2층(대광여고 옆)
062.673.5858 (모발모발)

광주보청기 난청센터

보청기

무료체험

직접 체험 후 결정!!

- ✓ 잠음없이 깨끗한 소리
- ✓ 웅웅~ 울리지 않는 보청기

062)362-3336
광주 동구 대인동 183-2번지(한미쇼핑사거리)